

# 초기 증상 인식 어려운 '위암' 30~40대 발생률 증가



## 건강 바로 알기 '위암' 조기진단과 치료

류성엽

조선대병원 위장내과외 교수

위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에 꼽힐 정도로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암 중 하나이다. 위암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초기에는 별 다른 증상이 없어, 암이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한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소화불량, 속쓰림,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위암 초기증상으로 인식되지 않아 뒤늦게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 보면 암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다.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축성 위염은 한국인 4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위암의 발병 연령대는 50~7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30~40대에서의 발병도 증가하고 있다.

◇위암의 원인과 증상=위암 발병의 원인은 환경적 요인이 가장 많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 소금 섭취량이 많은데 짠 음식, 맵고 뜨거운 음식, 불에 구운 음식이 위를 자극해 암을 일으키며, 다른 원인으로 헬리코박테라는 위장 세균에 감염돼 위염을 일으키면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흔히 암 발병 원인을 유전적인 이유만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암도 그렇듯 부모가 위암이 있다고 해 자식에게 유전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위는 소장과 대장보다 부피가 크고 이완이 잘 되

짜고 매운 음식·헬리코박테라균 원인 소화불량·복부 팽만감 지속엔 진료 매년 정기검사 통해 조기진단 중요 신선한 야채·과일 충분히 섭취해야

기 때문에 위에 암이 발생해 상당히 커질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조기위암은 증상이 거의 없고 암이 점차 자라나서 위의 일부가 굳어지면 항상 체한 듯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되며 동증과 구토를 일으키고 체중이 빠지게 된다.

암을 확인하는 방법은 암조직을 소량 떼어낸 뒤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찾아내는 것인데, 무엇보다 가장 편리하고 정확한 방법은 위내시경 검사다. 위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면 바로 암조직을 떼어 내서 현미경검사를 의뢰하므로 번거롭지 않게 확진을 할 수 있다.

◇위암의 치료 및 수술=위암은 전이가 없으면 수술을 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다. 위암의 표준 수술은 암이 발생한 위를 포함한 암세포가 위에서 멀리 퍼져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제2구역)까지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근치수술이다.

수술방법으로는 먼저 위내시경으로 하는 점막절제수술의 경우 조기 위암 중 암세포가 위점막 표면에만 한정돼 있으며, 크기가 작고 위 밖으로 퍼지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했 때 아주 엄격한 기준을 두고 시술한다.

위암 복강경 수술은 개복하지 않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작은 구멍을 통해 카메라와 수술 도구를 삽입해 고화질의 영상장비로 수

술 시야를 확보해 종양을 제거한다. 특히 개복수술에 비해 수술 상처가 작아서 수술 후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으며, 조기위암뿐만 아니라 진행성위암에서도 복강경 수술이 개복수술에 비해 합병증이 비교적 적고 재발률은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보다 한 단계 발전된 최첨단 방법인 로봇수술이 전국적으로 확대돼 진행 중이다. 2005년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로봇수술기는 그동안 수차례의 개선을 통해 현재 4세대 로봇수술기가 보급돼 있으며, 조선대병원은 광주 최초로 이를 도입해 2022년 4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로봇수술의 장점은 관절기구 사용의 자유로움이 확대되고 입체적인 3차원 수술시야를 들 수 있다. 로봇수술은 로봇이 혼자 알아서 수술하는 것은 아니며, 외과 의사가 원격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사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로봇의 팔이 움직이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로봇수술은 사람의 손처럼 관절이 자유자재로 꺾여지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어 어떤 구조물에 가려진 장기의 뒷면까지도 접근할 수 있으며, 3차원 입체영상상에서는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정확하고 안정된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암 수술 후 치료와 예방법=수술 후에는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미세한 암세포를 사멸하기 위해 항암제를 투여한다. 조기 위암은 전이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항암요법을 하지 않고 진행된 위암 환자에 대해 상황에 따라 먹는 항암제나 주사용 항암제를 3~4주 간격으로 투여한다.

위암 재발은 수술 후 보통 2~3년 이내에 나타나므로 수술 후 5년간 재발이 없이 생존하면 완치됐다고 판정해 학술적으로는 5년 생존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병기에 상관없이 전체 위암환자의 수



조선대병원 류성엽 교수가 다빈치로봇으로 위암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술 후 생존율은 60% 정도이며 조기위암은 90% 이상, 말기위암은 10% 이하이다.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암 요인이 되는 짜고 맵고 구운 음식을 삼가는 식생활 환경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충분히 섭취한다. 40세 이후에는 증상이 없어도 최소한 2년에 1회는 정기적으로 위내시경검사를 받도록 한다.

◇위암, 조기진단이 중요=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9%였으며 남자(80세)는 5명 중 2명(39.9%), 여자(87세)는 3명 중 1명(35.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위암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남자의 경우 연평균 5.0%, 여자의 경우 연평균 4.0%씩 발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암 중의 하나이다.

또 위암의 최근 5년간 생존율은 평균 77.5%으로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지만 병기에 따라 초기의 경우 97.0%, 진행형 62.1%, 원격전이 6.4%로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아직도 위암은 발생률이나 사망원인에 있어서 위협적인 질병이기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백내장수술렌즈 최대 23배 차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이 의료기관별로 최대 23배 차이가 나는 등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병·의원별 비급여 진료비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별 주요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4년째인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623개 가격을 공개한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7만56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7%인 334개 항목의 평균 비용이 지난해보다 인상됐고, 132개는 올해 7월 물가상승률(연 2.6%)보다 많이 올랐다. 주요 비급여 진료비의 의료기관별 격차는 여전히 컸다.

/연합뉴스

## 화순전남대병원 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 협의체 회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금연지원센터는 최근 전남도 금연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남도 건강증진과, 광주전남지역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금연 사업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금연 사업 현황 ▲금연 클리닉 운영 ▲지역사회 금연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 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지역 내

금연 희망자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금연지원센터는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를 확대, 전남 22개 시군구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암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흡연으로 인한 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금연지원센터장 최유리 가정의학과 교수는 "금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조선대병원, 중소·요양병원 감염관리 실무자 대상 '팸투어'



조선대병원(병원장 김진호)은 최근 중소·요양병원 감염관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방문단은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비롯해 중소·요양병원(광주아주병원, 강남요양병원, 에스엘요양병원, 효인재활병원, 수원탑요양병원) 감염관리 담당자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권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요양병원의 현장 방문 및 견학 프로그램을

를 통한 상호 네트워크와 교육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팸투어는 ▲병동 내 격리병실 ▲재활치료실 ▲중앙공급실 등의 시설을 둘러보며 효과적인 감염관리 활동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소·요양병원 방문단은 "대형병원의 감염관리 전문가와 중소병원 감염관리 실무 책임자 간에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병원의 감염관리 역량을 증진한 다면 감염 예방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